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관광경영학과	이름	이*희
파견국가	호주	파견도시	멜버른
파견대학	Victoria University	파견기간	5개월(한 학기)
귀국여부	예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대학 위치: 멜버른과 조금 떨어진 Footscray 도시에 있다. - 규모 및 시설: Building A-P로 순천향대학교와 비슷한 규모이고, 시설은 도서관, 수영장, 운동 시설, 강의실, 스터디룸, 카페테리아 등이 있다. - 전체적인 분위기: 한국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2018-2학기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Teaching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in Bilingual and Multicultural Settings: EDT2002 2)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BHO3507 3) Tourism Product Design and Delivery: BHO2193 4) Business Ethics: BMO2004 - 수업방법: <p>세미나 형식과 강의 형식이 있는데, 세미나 형식은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FULL로 강의를 진행되고 강의 형식은 2시간 LECTURE과 1시간 TUTORIAL의 조합으로 2시간은 듣는 강의라면 튜토리얼은 100% 토론 및 발표로 진행된다.</p> - 과제: <p>레포트, 에세이, 발표 준비</p> - 수업준비: <p>거의 모든 수업이 토론형 수업이기 때문에 준비할 것은 따로 없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주가 되었다.</p> - 추천과목: <p>Teaching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in Bilingual and Multicultural Settings(온라인/오프라인 강의 섞여 있음), international Trends and</p>

프로그램 운영	<p>Issues(교수님 재치 있으시고, 전공 무관하게 누구나 듣기 쉬움), Tourism Product Design and Delivery(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시고, 듣기에 부담이 없고 과제도 부담이 적음), Business Ethics(세미나 형식의 강의이고 윤리와 가까운 강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윤리 과목을 들은 경험이 있다면 매우 추천함)</p> <p>- 비추천과목: English Pedagogy and Practice for Secondary Students(어려움), Outdoor Education Pedagogy and Practice Secondary Students(어려움), Event Operations(순천향대학교에 없는 pre-requisite 강의를 있음), International Human Resource Management(pre-requisite 있음), International Business Context(다른 캠퍼스 강의로 배정받을 수 있음), Making Modern Identities(pre-requisite 강의를 있음), Product and Services Innovation(베트남 강사가 강의하셔서 발음 알아듣기 어려움), Sustainable Operations(줄리고 지루함)</p>
	<p>- 오리엔테이션: 2시간 정도 교환학생만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후 무료식사가 제공된다.</p> <p>-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Winter O'Fest, VUSU Hangs</p> <p>- 담당부서: International 부서</p> <p>- 담당자명: Christine Kan</p> <p>- 상담 프로그램: Student Welfare</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멜버른의 날씨는 바람이 심하게 많이 불어서 춥지 않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춥게 느껴지는 날씨이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고 가끔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헷갈린다. 밤에는 얇은 패딩을 입는 것이 좋다.</p>
안전	<p>Victoria University가 Footscray에 있어서 Footscray가 원래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역으로 유명하지만 Footscray안에서도 어디에 사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 살고 있다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 Footscray에는 비교적 중국, 베트남 사람/식당이 많다.</p> <p>Victoria University는 약 6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Footscray가 아닌 다른 캠퍼스에서 도서관 및 다양한 학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Footscray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캠퍼스 시설 이용을 권장한다.(수업 제외)</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 기숙사 이름: UniLodge@VU</p> <p>- 숙소 시설: 2인실</p> <p>- 분위기: 좋음</p> <p>- 규칙: 요리할 때 창문 열고, rangehood열고 요리하기</p> <p>- 유의사항: 요리할 때 화재경보기 울리지 않게 유의하기</p> <p>- 전반적인 평가: 비싸고, 조금이라도 연기가 나면 화재경보기가 쉽게 울리기 때문에 기숙사를 추천하지 않음.</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p> <p>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p> <p>기숙사의 화재경보기 문제로 주로 외부식당에서 식사.</p>
교통	<p>- 통학방법: 기숙사와 걸어서 5분 거리이다.</p> <p>- 시내교통: 트램, 기차, 버스 등 다양하게 이용하였다.</p> <p>- 주요도시: 멜버른 안에서만 이동하였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465,700	
Fees	X	
보험료	211, 555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 OSHC
숙소	2,044,800	한 학기 기숙사비
식비	1,020,450	
교통비	1,127,800	
책값	0	
기타1	-4,115,850	ECKSEP 장학금 AUD 5000
기타2	290,440	생필품, 휴대폰 요금 등
합계	2,044,895	

5. 출국 전 준비사항

모든 서류는 무조건 적어도 1부씩 프린트 해 놓아야한다. 비행기 표도 쓴 것도 좋지만 수화물 기준으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호주 비자는 공시되어 있는 40-50일과는 달리 2주일이면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숙소예약과 공항픽업서비스를 미리 신청해서 기숙사 자리를 미리 선점할 수 있게끔 하고 공항픽업도 호주 도착 10일 전에는 신청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기숙사에 도착하면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필품을 살 (초기 정착비용)50만원 정도를 환전해가는 것이 좋다. 교통비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생필품을 사러 갈 때의 교통비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 가자마자 학생증을 발급받아야 학생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학생증은 한국에서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호주에서 특히墨尔本은 '다문화'의 대명사이다. 그래서 그런지 토종 호주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 수업을 들을 때에도 한 클래스 안에 호주 사람이 1명밖에 없을 정도로 베트남, 중국, 스리랑카, 인도 등 다양한 나라가 국적인 학생들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호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도 해봤었는데, 학교와 비슷했다. 일했던 곳에는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이 같이 일하는 신기한 광경도 볼 수 있었다. 호주는 물가가 비싸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장학금을 받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호주는 호주만의 억양이 있고 발음이 있어서 기존에 한국학생들이 배우는 미국식 발음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호주 영어 듣기에 익숙해져야 하고, 에세이를 쓸 때에도 미국식으로 쓰면 감점을 받을 수 있어서 호주식 영어 글짓기에도 익숙해져야 했다. 다문화가 용인되는 지역이라 다른 방식의 영어를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지만 호주식 영어를 쓰지 않을 때 감점 받는 점은 조금 의아했다.

전반적으로 호주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지내는 것은 '지낼 만 했다'라고 할 수 있다. 1년동안 있었다면 다른 느낌일지도 모르겠지만, 한 학기 내내 날씨가 매우 좋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여러가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한국과 달리 수업시간이 많지 않아 교환학생으로 간 학생들에게는 호주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았다. 살면서 기숙사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려 당황하기도 했었고, 파트타임을 구하며 여러 곳에 이력서를 돌려보는 경험 등 안 좋았던 일, 신기했던 일, 좋았던 일들 골고루 다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잊을 수 없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Victoria University 국제교류처
담당자님과의 저녁식사



Korea(SCHU) Promotion Day



독일친구, 태국친구와의 친목 도모



ECKSEP 장학금 수령

 <p>Victorian Commission for Gambling and Liquor Regulation</p> <p>Certificate No: VCGLR/1815319</p> <p>Certificate of Completion</p> <p>This is to certify that</p> <p>Kyuhee Lee</p> <p>has completed to satisfaction the</p> <p>Responsible Service of Alcohol Program (initial training)</p> <p>approved by the Victorian Commission for Gambling and Liquor Regulation</p> <p>10 August 2018</p> <p><i>Catherine Myers</i> Catherine Myers Chief Executive Officer</p> <p>VICTORIA State Government</p>	
<p>RSA 취득</p>	<p>WOMEN'S SUCCESS: CHANGE THE RULES 강연(Victoria University 주최)</p>